

긴급 진단 주민참여예산제 이대로 좋은가

## 환경개선 편중... '성장동력 발굴' 한계

일자리·소득 창출 등 지역발전 견인 목적 도입 올해 334건·200억원 투자... 대부분 마을 정비도 "문제 공감... 신규 사업 발굴 등 대책 모색"

제주특별자치도가 2022년도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역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예산편성과 집행, 평가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있어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한다는 긍정 평가 속 당초 시행목적 중 하나인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성장 동력사업 발굴 육성'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2022년도 주민참여 예산 사업 공모에 들어갔다.

이달 공모가 마무리되는 주민참여 예산 사업은 앞으로 사업구체화(지역회의)와 행정시 조정협의회를 거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반영될 예정이다. 예산편성은 행정시별 배정 금액에서 자율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읍·면에는 각 4억원, 동에는 각 2억원씩 배정할 계획이다. 민경·민자사업보조 사업 추진시 자부담은 10% 이상이다.

주민참여예산제 대상사업은 지역 주민 다수에게 고루 수혜가 돌아가는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 ▷일자리, 주민소득 창출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성장 동력사업 ▷음면동 지역사업 이외에 도·행정시에 편성, 시행 가능한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실태=제주도는 지난해 확정된 2021년도 주민참여 예산에 따라 올해 334건(제주시 182건·서귀포시 152건)·2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라일보가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

업 334건을 분석한 결과 교통·공원·도로 시설 확충·개설 등 지역 인프라 개선사업이 215건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저소득층 방충망 교체 등을 포함하면 70~80%가 지역 환

경개선사업이다. 일자리와 주민소득 창출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성장 동력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양 행정시에서 시설비 등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이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변질돼 추진되면서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다.

제주시 한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는 "마을에서 시설을 개선하고 싶은 데 행정시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아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며 "마을기업 설립 등 마을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실무에서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느끼는 체감은 약한 것 같다"며 "당장 나오기는 힘이 들겠지만 신선훈 신규 사업 발굴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고대로그자



화사하게 인사 건네는 코스모스 4일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화단에 코스모스가 화사한 색깔로 활짝 피어나 섬을 찾은 탐방객들의 눈길을 강박민기자

## 농업용수 관리·공급체계 정비·개선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을 지하수 지속 이용 및 보전 등 수자원관리 정책방향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현행 농업용수 관리체계 정비와 관련해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선 특별 전담 조직(TF팀)'을 구성·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선 특별 전담 조직(TF)은 제주도와 양 행정시,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 참여한 가운데 총 23명으로 구성되며 올해 4월부터 2024년까지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또한 농업용수 관련 유관기관(부서)이 참여하는 협의체 성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추진과제별로 추진 방향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주요 활동내용은 ▷수자원관리 정책방향에 맞는 농업용수 광역화사업 추진 ▷농업용수 관리체계 정비와 수리계 조직의 운영관리 개선으로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을 방지하게 된다.

이어 지하수 유수율 제고 및 용천수와 하천수 등 대체 수자원 개발·활용 방안 모색과 공공관정별 취수허가량 조정 및 농가별로 사용량에 따라 요금 적정 부과방안 등의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알림**

한리일보는 오는 5월 6일부터 갤러리 ED에서 **꽃나들이봄**이라는 주제로 6인 초대전을 개최합니다.

드라마 '가을동화', '겨울연가' 등을 통해 동화같은 작품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이수동 작가를 비롯하여 국내 미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문인환, 박일용, 이강화, 이영수, 최지운 작가의 작품 30여 점이 선보입니다. 도민과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행사명: 한리일보 갤러리 ED 6인 초대전 '꽃나들이봄'

• 전시기간: 2021년 5월 6일(목) ~ 6월 18일(금)

• 전시오류: 2021년 5월 6일(목) 오후 3시

• 장소: 한리일보사 1층 갤러리 ED

• 문의: ☎ 064)750-2543

## 산지전자거래소 온라인 유통모델 부상

제주시 농협공판장 도입 후 거래량 지속 증가

제주시 농협공판장이 시행하고 있는 산지전자거래소가 전국적인 온라인 유통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도입·운영 중인 산지전자거래소와 aT농식품거래소의 거래량·판매금액이 매년 증가하면서 전국적인 온라인 유통모델로 성장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가 지난해 제주 농산물의 생산자-소비자 간 직·배송 사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농산물 유통 및 운송기간 단축으로 전 품목 평균가격이 도매시장 평균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지감귤 평균가격(10kg 기준)이 도매시장에서 1만5550원을 기록한 데 비해 전자거래방식으로 거래 시 1만8076원으로 16% 가량 높았다. 이어 당근(20kg 기준)은 13%, 양배추(8kg)는 35%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

특히 세척무인 경우 소비자 구매 패턴 변화에 따라 도매시장의 포장규격인 12수에서 탈피해 크기가 작은 20수 규격으로까지 거래품목을 다양화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직·배송으로 인한 유통비용 절감과 경매방식으로 인한 가격상승 효과로 인해 농가 수취가격도 도매시장 대비 노지 감귤 40%, 당근 24%, 양배추 120%가 증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 농산물의 전자거래 품목은 지난해 2019년에 전 품목으로 확대됐

으며, 거래량은 도입 당시 259t에서 지난해 5366t으로 20.7배 늘어 79억원의 거래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거래 참여조직도 도입 초기 64개소(도내 7, 도외 57)에서 218개소(도내 52, 도외 166)로 3배 이상 늘었다.

산지전자거래는 2016년 제주시 농협공판장에서 도입해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업무계획 상 농산물 가격 급등락 최소화 대책으로 도매시장 이외의 유통경로 확산(산지공판 활성화) 유통사제로 보고됐다. 이어 2020년 5월 농협경제지주는 산지전자거래 모델을 양파, 마늘 품목에 대해 전국 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개장하고 사과와 배를 거래품목에 포함했다.

aT농식품거래소는 2020년에 도입해 전국의 식자재마트와 급식업체를 주 거래처로 등록해 생산자 유통조직과 소비자 업체간 B2B 거래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제주도와 전국 최초로 지자체간 협약을 통해 농식품거래소를 도입하고 e-커머스사업처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aT농식품거래소는 올해 들어 라이브방송, 스트리밍경매 등 거래방식을 추가 도입해 소비자와의 직거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고대로그자

**제주 코로나19** 확진 738(1)  
 5일 18시 기준

이룸갤러리 **개관기념**

**이진휴 작가전 | Lee, Jin Hyu**

¿Después...Qué?  
 그리고... 그 이후는?

Picasso / A  
121 x 127 cm  
Mixed media

Me & Lenin's Overlap  
114 x 144 cm  
Mixed media

From the inside  
125 x 165 cm  
Mixed media

기간. 2021. 04. 07 ~ 05. 02      장소. 이룸갤러리

문의. 010-9882-8119

**초대의 말씀 |** 현대의 감정과 문화를 현대미술작품으로 표현해내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소통하는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제주지역과 국내외에서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이고, 발견하고, 보존하며, 널리 알리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소중한 고견 늘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담 이희숙 관장 올림

**작가 소개 |** 대한민국 서울 국립마르티트 미술대학 및 대학원졸업(스페인) 싱가포르메이징 양갤러리 전속작가

**주요전시활동**

- 국내외 개인전 34회 (스페인, 싱가포르, 베이징, 국내 등)
- 2021 이룸갤러리 개관기념 초대전, 제주
- 2020 YTN 방송국 아트스페이스, 서울
- 2019 싱가포르메이징 양갤러리, 싱가포르

**국내외 아트페어 및 미술제 다수 참여**

- 국내 아트페어 KIAF, 아트부산 등
- 싱가포르 아트스페이스, 싱가포르
- 베이징 비엔날레, 베이징
- 뉴욕 코리안아트스, 뉴욕

• 국내 조형물 설치 및 기획 다수 참여

**이룸갤러리** AD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로 7827-1, 2층

PHONE. 070-7795-5000

E-MAIL. irumgallery@naver.com